‘끝나도 끝난 게 아니라는’

“이것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것은 확실하다.”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다시 올 것이며, 발생 주기도 점차 빨라질 것이라는 예측이다. 코비드-19와 같은 전 세계적인 염병의 발생이 우연한 것이 아니라 구조적인 조건을 구비하고 있으며, 현 상태가 유지되는 한, 발생의 조건은 더욱 무르익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고대하고 있는 바, “하루바삐 이 비정상의 상황이 끝나고 정상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바람이 어그러지는 것은 물론이고, 아예 정상과 비정상의 구도가 전혀 다르게 마련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현 상태의 무슨 조건이 우리를 팬데믹에 묶어놓는다는 것인가? 단순화하여 세 가지를 말할 수 있다. 하나는 세계화된 교통이다. 지구 이편에서 저편으로 단숨에 이동할 수 있는 교통수단의 발달로 염병의 전파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사람들의 왕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 바이러스의 고속도로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또 하나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편의상 자연 자원과 인적 자원의 두 영역으로 나눌 수 있다. 자연 자원

에서 이윤을 쥐어 짜내는 방법은 이익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야생의 지역을 침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로써 바이러스가 자신의 텃밭을 떠나 인간 영역으로 옮기게 되는 근본 원인이 만들어진다. 바이러스 발생에 삼림파괴와 야생동물의 불법 이동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한편 인적 자원을 통한 이윤 쥐어짜기는 노동자로 하여금 탈진 상태에 이르도록 일하게 만들면서도 자발적으로 일하는 것처럼 꾸미고 모든 책임을 노동자에게 전가해도 항의할 수 없게 하면서 이루어진다. 외부적 강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핍박하는 '내부 강제'의 방식이므로 매우 효율적인 시스템임에 틀림이 없다. 이는 사회 전체를 탈진 상태에 빠지게 하지만, 제대로 항의할 곳마저 찾을 수 없게 만들면서 신체와 정신 건강의 양 측면에서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한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면역도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바이러스가 퍼질 경우, 그에 대항하기 어렵게 만든다.

세계화된 교통을 막는 것은 비상조치의 상황이 아니라면 불가능하다. 기후변화에 끼치는 좋지 않은 영향을 거론하며 비행기 이용을 거부하는 이도 있지만, 당장 대세가 되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현안은 이윤 극대화를 지존으로 삼는 시스템이다. 바이러스 창궐의 원인을 제공해주는 두 가지 구조적 요인을 근본적으로 검토하지 않는다면 앞으로의 팬데믹은 막기 어렵다. 따라서 팬데믹과 신자유주의 체제의 긴밀한 연관성은 우리 모두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과제로 볼 수밖에 없다.

팬데믹은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번성하고, 신자유주의는 팬데믹을 유혹한다. 1980년대부터 자리 잡기 시작한 신자유주의 체제가 한 세대에 걸쳐 기반을 공고히 하자, 팬데믹이 그 초대에 응하여 출몰하고 있다. 이와 같은 팬데믹과 신

자유주의의 상호부조 체제에서 가장 고통받는 것은 사회적 취약 집단이다. 예컨대 장애인, 이주민, 소수 인종 집단, 입원 환자,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다. 그리고 노인이 있다. 실제로 팬데믹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불평등 처우와 학대가 심각하게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우리나라도 1년 넘게 코비드-19 상황이 계속되면서 상당수 노인들의 상황이 예전보다 많이 악화되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이번 호의 특집 주제는 '동아시아 종교와 노년'이다. 이는 코비드-19 상황이 오기 전에 기획된 것이지만, 노인의 문제를 반추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현 상황의 맥락에서도 적합성을 찾아볼 수 있다. 6편의 특집 논문은 다양한 주제와 시기를 포괄하고 있다. 〈중국 고대 노인의 정체성과 권위에 관한 연구〉는 중국 선진(先秦) 시기를 다루면서 "누가 노인인가?", "노인의 사회적 위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등의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이 논문의 의의는 노인의 정체성과 권위의 맥락을 묻고 있다는 점이며, 연장자 중심의 연령주의와 조상숭배의 강조점 역시 중요하다. 〈구장(鳩杖), 노인에게 부여하는 황제의 권위: 한대 왕장제(王杖制)를 중심으로〉는 중국 한대의 노인 지팡이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특색이 있다. 황제가 특정 노인들에게 구장을 하사하는 관행은 어떻게 생겼으며, 왜 하필 비둘기 형상인가? 이 논문은 이런 질문에 답해나가면서 노년에 대한 관념, 표상의 차원이 아니라, 노년과 연관된 사물 및 그 정치적 제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Ageism in Pre-Modern East Asia: The Different Trajectories of a Buddhist Parable about the Elderly in Japan and Korea (전근대 동아시아의 연령차별주의: 일본과 한국의 엇갈린 불교 기로 우화의 궤적)〉은 노인을 내다 버리는 불교 설화를 분석하면서 전근대와 근대, 그리고 일본과 한국의 경우를 비교하고 있다. 그 비교작업을 통해 드러나는 것은 전근대와 근

대를 아우르는 노인에 대한 숨겨진 편견과 연령차별주의이다. 특히 한국의 경우 수 세기에 걸친 유교적 교화에도 불구하고 그런 편견이 지속되어 왔다는 점이 흥미롭다. 〈'노화'와 '장생'을 바라보는 도교적 시선(視線)의 복합성과 그 함의〉는 노인과 노화, 그리고 불로장생에 대한 도교 전통의 복합적 관점이나 중층적 해석 및 그로 인한 긴장 관계를 잘 보여준다.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신체–정신, 개인–사회–자연 사이의 자연스런 소통을 지향하는 양생 수행의 중요성이다. 이 논문에 따르면 "비워서 채우는" 도교의 역설은 여전히 현대의 상황에도 적실성을 지니고 있다. 조선시대를 다루고 있는 〈노년의 몸과 유교적 성찰〉은 유학자의 노년 담론을 분석하고 있다. 초점을 두는 관점은 '흰머리', '어두워진 눈', 그리고 '빠진 이빨'과 같은 '몸의 변화'이다. 노년에 대한 정책이나 제도적 측면이 아니라, 유학자들이 노화를 자각하면서 담론화한 측면에 주목하는 것이다. 논의가 이어지는 바는 청년과 노년의 대대(待對) 관계 즉 서로 구별되지만 긴밀하게 연관된 젊음과 늙음의 관계이다. 이를 바탕으로 여기에서 기대하는 바는 늙음이 갖는 공도(公道)와 공동(共同)의 성격, 곧 노년의 공공성을 이해하기 위한 단초가 마련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몸의 늙음: 한국 근대 노년 관점의 변화〉는 19세기 후반~20세기 전반이라는 격동기의 한국을 다루고 있다. 이 시기는 조선조의 왕조 국가에서 근대 민족국가 (혹은 인종국가), 또는 식민지 체제로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던 때이자, 청년 담론이 강력하게 부각하던 때이기도 했다. 이 논문은 정치 체제의 변화 구도에서 인구집단을 동원하기 위해 채택된 청년–노년이라는 메타포의 사용이 인체의 늙음에 관한 관점에 미친 영향을 서술하고 있다. 그 영향의 일반적 효과로 나타난 것은 인체의 노년이 하나의 '추문'이라는 것이다.

연구논문은 정선된 두 편으로 하나는 〈한국의 반-신천지 현상에 대한 종교학적 고찰: '비윤리성' 담론에 대한 정신분석의 '윤리'적 독해를 통하여〉이고, 다른 하나는 〈요역(徭役)의 관점에서 본 조선 초 승역(僧役)의 이해: 도첩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이다. 전자가 '코비드-19 확산의 주범'이라고 하여 매스컴에 떠들썩했던 이른바 신천지교회를 다루고 있는 반면, 후자는 조선 초기 국가의 각종 공사에 승려들의 노동력이 동원된 바의 의미 및 도첩제와의 연관성을 논의하고 있다. 두 논문의 스타일은 매우 다르다. 전자의 논문이 신천지교회의 이단성과 비윤리성을 비난하는 주류적 시각의 맹점을 위트와 날카로운 비판으로 드러내는 문화비평적인 성격인 반면, 후자는 사료를 꼼꼼하게 추적하고 그 독해에 치중하는 문헌 연구의 자세를 보여준다. 우리가 별생각 없이 계속 듣고 있으면 그 말이 나에게 스며들어 당연하게 여겨지기 마련이다. 이때 누군가 나타나서 그 당연함의 상투성을 깨뜨리고 그 틈의 빛으로 여태 못 보던 것을 보여준다면 우리는 그 참신함과 발랄함에 박수 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전자의 논문은 이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후자의 느릿느릿함과 꼼꼼함도 우리에게는 필요한 덕목이다.

이번 호의 설림(說林)은 〈하늘까지 걸어간 사람: 초마 드 코로스(Csoma de Körös Sandor)를 다시 생각한다〉이다. 설림을 읽노라면 늘 삼림욕을 하는 듯하고, '숲속의 빈터'의 편안함을 느끼기도 하였는데, 이번 설림도 기대에 벗어나지 않는다. 설림의 필자가 초마를 떠올린 것은 코비드-19 상황에서 평소보다 자주 집 주변 산책로를 걸으면서 이루어졌다. 19세기 전반 티베트학과 불교학의 기반을 놓았던 초마가 학문적 관심 영역에서 잠시 벗어나 '쉴 새 없이 걸었던 초마'로 변신하게 된 것이 바로 걷기로 소통한 덕분이다. 필자가 다시 초마의 일대기를

구체적으로 섭렵하고 그에게 매혹된 내력이다. 순례와도 같은 초마의 행로를 따라가다 보면, 독자는 그 옆에서 같이 걷고 있는 설림 필자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서평이 대상으로 삼은 것은 번역된 웬디 도니거(Wendy Doniger)의 두 책이다. 오래전부터 도니거의 책은 신화 연구자는 물론이고, 종교학자가 반드시 읽어야 한다는 평판이 나 있다. 도니거로 인해 신화를 보는 관점이 깊어지고 더욱 재미를 붙이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가 내 주변에도 적지 않게 있다. 신화연구에서 도니거가 지닌 의의와 성격에 대해 친절하게 소개해주는 서평자의 친절함으로 웬디 도니거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이번 호에 좋든 싫든 코비드-19의 흔적이 많이 눈에 띈다. 1년 넘게 우리 삶의 주요 조건을 이루고 있으니 어쩔 수 없는 노릇이다. 적어도 그만큼 더 지나야 할 것 같지만, 그때에도 끝난 게 끝난 것은 분명 아닐 것이다.

_장석만

종교문화비평 편집위원. 논문으로 〈'근대성의 이면(裏面)'으로서의 점복, 그리고 그 너머〉, 〈'종교'를 묻는 까닭과 그 질문의 역사: 그들의 물음은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던지는가?〉, 〈인권담론의 성격과 종교적 연관성〉등이 있고, 저서로 《한국 근대종교란 무엇인가?》 등이 있다.

skmjang@gmail.com